

〈주요 산업〉

철강, 수입 규제 확산으로 수출 여건 악화

박병철 · 현대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IMF 이후 철강 수급 동향

1) 국내 수요 위축 심화

IMF체제 이후 경기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자동차·가전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생산 정체, 재정 긴축에 따른 SOC 사업 지연 등으로 철강재 수요가 침체 국면에 진입, 2월까지의 철강재 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24.4% 감소했다. 1~2월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비 12% 감소하고 업체 부도가 지속됨에 따라 조강류 내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했으며, 자동차 생산이 전년비 27% 감소하는 등 수요 산업 침체에 따라 판재류 내수도 18% 내외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수출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과 업체들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전년비 35.8% 증가했는데, 특히 판재류 수출은 35.8%나 증가했다. 철근의 경우 1분기에 생산이 13% 가까이

감소하는 가운데 판매가 25.9%, 내수는 40.9% 감소했으나 수출은 336%나 증가했다. 주요 수요처인 건설 업체들의 철근 사용량이 1분기에만 전년보다 25.4%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형강도 1분기 생산이 20%, 내수는 55% 감소한 반면, 수출은 미국·유럽 시장 호조로 전년비 150% 늘어났다. 한편, 후판은 생산이 28%, 판매는 21% 감소했는데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 부문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냉연판재류도 내수 급감과 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으로 수출 물량이 늘었는데,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수출 시장 수출은 줄어든 반면, 유럽이나 주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급속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수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1997년에 4,252만 톤의 실적을 보였던 조강 생산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

〈표 1〉 1998년 1~2월 철강 수급 실적

(단위: 천 톤, %)

	생산		내수		수출		재고	
	1998.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998.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998.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998.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조강류	2.33	-16.6	1.744	-34.6	475	65.5	821	-7.5
판재류	3.569	8.1	1.895	-11.7	1.519	28.5	1.496	15.1
주단강	69	-19.4	47	-28.0	10	65.1	29	-13.2
철강재 계	5.960	-3.4	3.686	-24.4	2,004	35.8	2,346	5.6

주: 당월은 전년 동월비, 누계는 전년 동기비임.

다. 조강 생산은 2월에 조업 일수 감소, 업계의 감산 정책으로 1월보다 6.2% 감소하다가 3월 들어 조업 일수 증가와 전기로 업계 보수 완료로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1분기 누계로는 전로의 가동률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9% 소폭 증가에 그쳤다. 특히, 생산 증가를 주도하던 전기로 부문이 설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여 생산량이 감소했다.

2) 해외 철강 경기 악화

최근 세계 철강 경기는 미국, EU 등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지역은 극히 부진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요 감소와 수출 강화로 세계 시장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세계 철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IISI의 전망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세계 철강 소비가 1998년에는 아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하는 반면, 생산은 6.9%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시장은 철

〈표 2〉 최근 조강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

	1998. 1	1998. 2	1998. 2		1998. 3	1998. 3		1998. 1~3	1998. 1~3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월비	
조강 생산	339.2	318.3	-6.2	5.1	354.7	9.2	-1.7	1,018.8	0.9	
전로	211.6	191.6	-9.5	1.7	191.5	11.0	0.6	615.8	1.9	
전기로	127.6	126.7	-0.7	10.8	142.0	6.5	-4.9	403.0	-0.7	

강 수요가 1998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반면, 태국 등의 신규 설비 가동으로 철강 시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연간 철강 수입이 400만 톤을 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97년 수출 규모가 65만 7,000톤(동남아 전체 수출량의 18.6%)에 이르는 최대의 수출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요는 40%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1997년에는 조강류와 강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고 1998년 철강 수요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IISI, 1.7% 전망), 시황 회복 지연과 역내 철강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로 수출 환경은 불리하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재고 조정을 목적으로 수입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저가재 유입이 지속되고 동남아 지역의 수요 감소로 중국으로의 수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은 경기 침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요 산업의 철강 소비 감소로 인해 1998년 수요가 4%(IISI)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업계의 감산으로 조강 생산량이 1998년 1월 들어 감소세(전년비 -4.1%, 전월비 -1.7%)를 보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생산 축소도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입이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으나, 미니밀 설비(생산 능력: 1997년 662만 톤, 1998년 1,116만 톤) 가동이 본격화되고 아시아, 특히 동남아 시장을 잃어버린 일본의 수출 공세가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철강 시황이 악화될 전망이다(WSD, 1998년 하반기 판재류 가격 18~36 달러 하락 전망). IISI는 수요 산업 신장세 둔화로 1998년 미국의 철강 수요가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경우도 역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98년 철강 수요가 5.2%(IISI)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일 전망이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및 연간 전망

1998년 철강 내수는 경제 성장률 하락, -30%대에 이르는 설비 투자 감소, 수요 산업 침체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16.1%, 연간으로는 -19.9%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조선 산업의 생산이 하반기 1.7%, 연간 6.0% 늘어나는(HRI) 것을 제외하고는 철강 수요 산업 부문의 생산이 극히 침체될 전망이어서 철강 내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수주 규모가 하반기에는 정부

의 SOC 조기 발주 등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지만, 연간으로는 20.4%나 감소하고(HRI),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생산이 연간 16.2% 감소할(HRI) 전망이다. 철강 수출에 있어서는, 3분기 이후 국내 업체간의 경쟁이 지속되는 한편, 동남아 국가의 수입 둔화와 미국 미니밀의 공급 증가 등이 수출 증가를 둔화시킴에 따라,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은 19.1%, 연간 20.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나라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한편 수출 증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품목별로는 판매의 95% 이상을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조강류의 내수가 20% 이상 감소하고, 고철 수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으로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재류의 경우 냉연강판은 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가전 등 수요 산업 침체로 내수가 15% 정도 줄어들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주력, 수출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열연강판은 생산 능력이 확대된 냉연강판, 강관 등 차공정용 내수의 증가로 수출 여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철강 생산은 하반기에 다소 회복세(상반기 대비 10% 내외)를 보이겠지만,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 연간으로는 전년비 6.2%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조강 생산 증가를 주도하던 전기로 부문의 생산이 설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부도와 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 능력이 0.8% 감소하고(철강협회) 수요 부진으로 가동률도 하락함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철강 수입도 내수 정체, 환율 상승, 국내 설비 증가로 전년 대비 72.5%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표 3〉 1998년 철강 산업 전망

(단위: 천 톤, %)

	1997년	1998년 하반기(e)	1998년 연간(e)
내수	38,145(1.5)	16,657(-16.1)	30,560(-19.9)
수출	10,364(9.6)	6,316(19.1)	12,440(20.0)
생산	44,733(5.6)	22,089(-0.5)	41,963(-6.2)
수입	3,776(-19.0)	884(-24.1)	1,037(-72.5)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수입은 핫코일 제외.

수출 확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1) 수출 채산성 악화와 수입 규제 확산

내수 침체, 높은 환율에 따른 원자재 구득난과 원가 부담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수출이 유일한 돌파구로 꼽히고 있으나, 국내 업체간 경쟁과 동남아 수요 부진에 따른 세계 시장의 경쟁 격화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노력으로 1분기 철강 수출(제강 원료, 반제품, 특수강 포함)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비 57.63% 증가한 439만 톤을 기록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27.82% 증가한 20억 2,215만 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채산성 악화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여력이 발생한 데다가 내수 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업계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가격 인하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후발개도국의 공급 능력 확대와 아시아 지역의 수요 침체에 따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생산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같은 수출 단가 하락과 밀어내기식

수출은 주요 수입국 업체들의 경계를 유발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멕시코 등 개도국들까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무더기로 덤핑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미국 철강 업계는 한국산 STS선재에 최고 78%의 마진율로 반덤핑 제소한 데 이어, STS후판에 대해서도 최고 52.69%의 덤핑 마진율로 제소했다. 또 美 상무부는 냉연강판·도금강판에 대한 3차 판정에서 기존 관행을 뒤집고 2차심보다 높은 수준의 덤핑 마진율을 발표해 정부 차원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EU는 한국산 와이어 로프에 대해 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잠정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철강생산자협의회는 STS강판의 수입 급증과 가격 하락을 이유로 반덤핑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개도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는데, 대만은 H형강에 대해 잠정적으로 54.81%의 덤핑 마진율을 결정했으며, CSC社는 한국산 냉연 제품의 덤핑 제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또 멕시코는 한국 등 아시아산 제품의 덤핑 방지를 위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 대응 방안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존을 위한 업계간 협력이다. 이 협력은 생산량 조절, 수출 물량 및 가격 조절, 시장 개척 등 여러 부문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계 시황 둔화로 수출 증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의 판매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품목을 업계 공조를 통해 감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EU 등이 아시아 철강 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만큼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업계간 협력을 통해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물량 및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원거리 지역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만큼, 개별 업체뿐 아니라 업계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여 이들 지역을 보완 시장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지역 수출이 어려워져 자 연합방문단을 구성, 인도·중남미 등에 대한 공격적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철강 산업의 생산 구조에 있어서

는 국내외 수요의 고급화 등을 감안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된다. 일반 강재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설비 확대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으며, 특히 유망 수입국인 중국이 관재류를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수입 억제책을 쓰고 있으므로 수출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의 경우 수요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국산화함으로써 외화 절감과 함께 내수 시장 회복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 수입국들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서는 제도와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고, 덤핑 조사 기관의 판정이 WTO 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들어 3 건의 반덤핑 제소를 한 미국의 1~2월 한국산 철강재 수입은 전년비 5.1% 감소한(23만 7,680 톤) 반면, 일본산 수입은 전년보다 91.3% 늘어나고(57만 6,070톤) 있어 우리 업계의 수출 전략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모호한 덤핑 기준 등을 이용해 반덤핑 제소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 **HR**